잃은자 배신자 대적자

(눅19:1-10)

1.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2.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3.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5.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9.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10.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잃은자 배신자 대적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드라마틱한 그런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만남이 결국은 10절 말씀대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는 말씀으로 귀결이 됩니다.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로서 찾아졌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삭개오를 향해서만 잃어버린 자로서 찾아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6절의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급히 내려왔다는 것은 삭개오의 마음속의 즐거움과 기쁨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를 표현하기 위한 설명이 되지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급히 내려올 정도로 크고 기쁘게 영접할 때, 잃은 자가 찾아진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내가 잃은 자로서 찾아진 자인가, 아니면 배신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사람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잃은 자이거나 배신자이거나 대적자입니다.
그런데 대적자는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서만 대적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잃은 자와 배신자와 대적자를 어떻게 구분해낼 것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6절 말씀이 기준이에요.
황급히 경황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뻐할 때의 그 기쁨, 이 기쁨이 기준이 됩니다.
이 극한에 달하는 즐거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잃은 자로서 찾아진 자인가, 내가 배신자인가, 대적자인가가 구분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잃은 자는 누굽니까?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이라면 제일 먼저 가정이 있을 것이고, 직장, 그 다음 사적으로 취미생활 하는 단체나 클럽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소속단체가 있고, 친구들과의 만남, 그 모든 삶의 현장을 다 통틀어서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없는 자가 잃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살고 있는 게 인간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삶의 현장은 에덴 밖입니다.
에덴이라는 게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 바깥에 있기 때문에 기쁨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기

쁨 없이 살고 있는 자가 잃은 자입니다.

그러면 배신자는 누굽니까?
에덴이 기쁨의 땅이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채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바깥으로 나왔는데도, 마음에 채워져서 행복과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안 계신데도 기쁨을 다른 것으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 하나님께 등 돌린 자들, 에덴 밖으로 쫓겨났으면 기쁨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잃은 자인데, 에덴 밖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내가 하나님 없으면 기쁨을 못 찾을 줄 알아? 하면서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 하는 자들, 이들이 배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하나님 없이도 찾으려고 하는 배신자의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정해 놓습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가치라고 해요, 가치.
그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치획득을 한 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돈이죠.
어느 민족, 남녀노소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기쁨의 이유가 된다고 믿어지는 것이 돈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가정의 가족들이 있고, 그래서 가정에서 기쁨을 얻고, 등산가서 기쁨을 얻고, 골프 치면서 기쁨을 얻고, 사업해서 돈 많이 벌면서 기쁨을 얻고, 자식이 대학 합격해서 기쁨을 얻고… 하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기쁨을 얻는, 또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다 배신자입니다.

그러면 대적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부르느냐 하면,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서 정한 다른 기쁨의 이유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는 자들, 고백하는 자들, 선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세상에서의 기쁨의 이유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주신다고 믿고,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선전하고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고 다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하고 선전하고 간증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제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기쁠 수 있는 이유들을 내게 주시는 분으로 선전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선전을 해버림으로써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에서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대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바울이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교회 안에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서 왜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가 된 것이고 또, 잃어버린 자가 찾아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향료무역이 왕성하던 곳이었고 무역이 성행한 만큼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세리 장이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되었든지 세리로 입문한 인생으로서는 잠재한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실현시킨 겁니다.
더 이상의 발전과 성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리 장까지 올라갔으면 그게 끝인 거죠.
식민지 종주국인 로마와의 관계에서 식민지 국가인 유대민족의 사람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 지역의 모든 세리들을 다 관할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세리들이 세금을 마음대로 매기고, 일정금액 로마정부에 바치고 나면 다 자기 몫인데, 그 모든 세리들이 그렇게 벌어온 돈 중에서 세리 장이 또 다시 거두어들이니까.
여리고에서 유명한 부자였을 것이에요.
아마 제일 부자 아니었겠습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리 장이라고 하는 위칭에 대한 체면도 없이, 키도 작은 사람이 촐랑거리며 막 뛰어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사회 내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비중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욕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겉으로 욕하겠습니까, 세금을 때려버리는데.
지금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와서 다 뒤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함부로 말 못해요, 그런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원치 않는 권세고 욕먹는 권세였지만.
이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분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이때 즐거움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특색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알려면 반드시 증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밀어내기'입니다.
밀어내기가 무얼 말하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삭개오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리가 토색하지 않고 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자기에게 남을 돈이 하나도 없게 될 재정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토색한 자가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는 얘기는 자기에게 남아있을 돈이 하나도 없을 거라는 얘기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맞이한 증거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위치에 올라가서 막대한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배신자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행복하고 기쁨이 있을 줄 알고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해도 위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안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쁨의 이유라고 믿는 그 돈이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말씀 한 마디에 그렇게 기쁘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기쁨의 이유로 영접이 되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던 돈, 그러나 버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달리 기쁨의 이유가 없었으니까, 다른 대안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들어오자 돈이 밀려납니다, 이게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기쁨의 이유로서의 예수님과 하나님아버지가 영접된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마음에 영접이 되었으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 그동안 기쁨의 이유라고 믿어졌고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이 밀려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일례로 이 세상 울타리 안에서만 이야기해도, 세상에서 기쁜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이번 입학시험에서 서울대학에 수시 합격을 했다, 그러면 누가 묻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아, 한 턱 내야지!'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한 턱만 내겠어? 두 턱 세 턱도 낼게!' 그리고 자기 돈이 방출이 됩니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특징은 내가 갖고 있던 것을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갖게 되면 반드시 내놓게 됩니다.
기쁨을 갖게 될 때 긁어모으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다 쏟아내고 밀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기쁨으로 영접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기쁨으로 영접되었고 기쁨의 이유로 영접이 되었다면 그동안 기쁨의 이유로 알고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다 방출되게 됩니다, 다 내놓게 됩니다.

이렇게 내놓게 되는 일이 안 생긴다면 예수님을 기쁨의 이유로, 하나님을 에덴에서처럼 유일한 행복과 평강의 원천으로 모셔 들이고 영접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껏 우리가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기쁨의 이유가 된다고 하는 돈, 출세, 형통, 이런 것들을 얻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대적자라는 겁니다.
사도바울과 열두 사도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주제와 연관되어서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도바울은 세상에서 기쁨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했던 가치들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을 기쁨의 이유로 영접하고 나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면서 한 말이 뭐냐 하면, 그동안 내가 기쁨의 이유로 갖고 있었던 좋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밀어낸다고 말합니다.
지금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내가 한 턱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한 턱을 내느냐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한 턱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색한 적이 있으면 네 배로 갚고야 말겠다는 얘깁니다, 예수님 모셔 들인 게 너무 기

쁘니까.
그러면 열두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도바울처럼 세상에서 기쁨의 이유라고 믿어졌던 것들을 갖고 있지 못했던 자들이었고,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완전히 그 모든 꿈과 야망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이 세상에서 떠나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던 마음이 죽어버립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바울은 찾은 기쁨의 이유들을 버렸고, 이들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쁨의 이유로 영접되게 될 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처럼 재정적인 타산에 어두운 자도 대충 보기에 재산의 절반을 잘라내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가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내겠다, 다 속여 빼앗은 거예요, 분명히 로마정부의 법대로 하면 10원만 거둬도 되는데, 너는 이러이러 하니 20원 내라고 해서 거둔 거예요, 다 속여 뺏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배로 갚게 되면 자기 노후에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일단 예수님과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될 때는 노후에 대한 걱정 자체가 없어지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수가 성 여인이 자기를 보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 그 시선이 너무 따가워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사막 한 가운데 우물에 물을 길러 나갑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이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삶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집니다.
그리고 기뻐진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자기를 손가락질 하는 것이 싫어서 혼자 제일 더운 시간에 사막으로 물 길러 나온 여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여기엔 체면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염려도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나라가 기쁨으로 주어지자마자 한 것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가 문을 박차고 나가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기쁨의 이유로 영접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그리고 기쁨을 찾지 않을 만큼 하나님 예수님으로 기뻐졌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기쁨의 이유라고 하는 것들을 상실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기쁨의 이유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내 몸이 번듯해서 기쁜 것이 아니고, 내 가정 때문에 기쁜 것도 아니고, 내 자식 때문에 기쁜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기쁜 것도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도 돈 때문에도 무엇 때문에 기쁘지도 않으니까 기쁨으로 순교를 하지요.
야아,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삭개오처럼 밀어내는 증거가 나오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열두 사도처럼 갖고 싶었던 모든 세상에 대한 소원을 밀어내고, 사도바울처럼 갖고 있는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밀어낼 만큼 예수님이 꽉 차게 영접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가 바로 이 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쁨의 이유라고 정해놓은 모든 것들에 대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잃은 자의 자리로 옮겨오는 거예요.
대적자의 자리에서, 배신자의 자리에서 잃은 자의 자리로 옮겨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걸 얻으려고 했던 대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을 얻으려고 설치던 배신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와서 더 이상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의 이유들에 대해서는 죽은 자의 입장이 돼서 잃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잃은 자의 마음이 될 때 예수님이 기쁨으로 영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찾게 하시려고 십자가 붙잡고 잃은 자 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붙잡고 이 땅에 모든 기쁨의 이유라고 정해놓은 가치들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해주심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은 영접함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